‘한국전쟁~88 올림픽’ 민초들의 삶을 읽다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1950~1980년대 (전 4권)
홍석률 외 지음

21세기 한국사회는 냉전·분단시대가 남긴 굴레를 끊어버리고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1980년 5월 16일, 광주 전남도청앞 분수대에서 열린 민주화대성회 모습. 〈광주일보 자료 사진〉

서너 살에 4·19혁명과 5·16 쿠데타가 일어났다. 국민학교를 다니던 10살에는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어야 했다. 예비고사와 본고사를 치르고 진학한 대학 3학년 때까지 줄곧 한 대통령이었다.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이 교차하던 격동기에 청년기를 보냈고, 서른 무렵에는 6월 항쟁 현장에서 ‘넥타이 부대’로 참여했다. 그리고 다시 10년 뒤 마흔에 IMF를 겪으며 정리해고 되기도 했다. 요즘 정치 무대의 중심에 선 ‘58년 개띠’의 삶의 이정표이다. 한국전쟁 이후의 가난과 보릿고개, 산업화, 민주화 등 한국 현대사의 터널을 온몸으로 관통해온 세대라 할 수 있다.

최근 출간된 ‘한국현대 생활문화사’는 1950년대부터 1980년까지 꿋꿋하게 삶을 이어온 민초들의 역사를 10년 단위로 4권의 책에 담았다. 창비 창간 50주년을 기념해 내놓은 시리즈로, 기획부터 집필까지 3년여가 소요됐다. 홍석률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와 이순진 영화사연구자, 이정은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등 역사학계와 생활문화 분야 32명의 다양한 필진이 참여했다. 필자들은 동시대인의 삶과 문화에 초점을 맞춰 여러모로 당대의 생활사를 재구성했다.

각 권은 ▲삐라 줍고 댄스홀 가고(1950년대) ▲근대화와 군대화(1960년대) ▲새마을운동과 미니스커트(1970년대) ▲스포츠공화국과 양념통닭(1980년대) 등 흥미로운 부제를 달고 있다. 각 권마다 시대를 개관하는 글로 시작하고 주제별 8~9개의 글이 이어진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해 분단과 함께 잃어버린 반쪽의 이야기를 복원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당대 한국과 북한을 비교해가며 읽는 재미를 준다. 끝 부분에 붙여진 ‘그때 동아시아는?’ 코너를 통해 같은 시기의 일본과 중국의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다.

‘1950년대’는 소설 ‘자유부인’과 ‘오발탄’을 근거로 전쟁 직후의 대조적인 삶과 미국문화의 확산, ‘우골탑’으로 대변되는 교육열 등을 짚는다. ‘1960년대’는 재벌의 탄생과 군사주의 문화, 지식인과 잡지문화 등에 초점을 맞춘다. 양성우 시인이 ‘겨울공화국’으로 묘사한 ‘1970년대’는 도시로 간 여공의 삶과 새마을운동, 장발·미니스커트, 부동산 열풍 등을 통해 당대를 분석한다. 또한 ‘1980년대’는 광주 학살로 시작해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과 함께 프로야구 열기, 먹거리문화, 북방정책, 신도시 아파트건설 등에 돋보기를 댄다.

독자들마다 관심가는 시대가 다를 것이다. 책을 읽다보면 자신이 살고 지나온 과거의 시간이지만 그 시대가 새롭게 읽힌다. 더욱이 동유럽으로 유학을 떠난 전쟁 고아, 북으로 간 재일조선인, 보천보 전자악단 등 동시대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저자들은 ‘기획의 말’에서 “냉전, 전쟁, 분단 그리고 불평등과 부정 속에서 희망을 일구어간 지난 세기 역사에 대한 성찰은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을 찾는 작업”이라며 “시리즈가 한국사회의 현재를 성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보태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창비·각권 1만65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일상의 사물 52가지에 담긴 여성의 심리와 욕망

그남자가 읽어주는 여자의 물건
이건수 지음

‘노출된 심장’

여성과 친밀한, 어떤 사물에 대한 글 첫머리에 등장하는 문장이다. 무엇일까. ‘반지’다. “우리가 반지를 끼는 왼손 네번째 손가락은 심장과 제일 가까운 핏줄이 흐르는 곳이다. 반지는 지금 그 심장이 묶여 있음을 의미하는 상징이 된다. 달리 말하면 당신의 생명이 반지를 준 사람에게 어느 정도 속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표식이 된다.”

글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로, 정윤희 주연의 영화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의 옥가락지로, 카르티에 반지를 낀 장롱도까지 이어진다.

일상의 사물 52가지에 담긴 여성의 심리와 욕망을 들여다 본 책 ‘그남자가 읽어주는 여자의 물건’이 나왔다. ‘월간미술’ 편집장 등을 지냈고 그남자(그림 읽어주는 남자)로 불리는 미술평론가 이건수는 예술, 사회, 문화에 관한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풀어나간다.

저자는 인터넷 한번 클릭하면 알 수 있는 ‘백과사전식의 사물 정보를 제시’하는 대신, ‘사물을 열린 개념의 예술 작품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철학적인 시각에서 해석하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인상 비평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저자의 표현처럼 ‘주관적 체험과 느낌의 개입을 포기하지 않아’ 훨씬 재미있게 읽힌다.

‘여성적 사물의 매혹’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됐던 글로 소재는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느끼는’ 오감을 통해 분류했다.

책은 ‘아름다워지려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주얼리와 뷰티 계열’(귀고리·하이힐·비키니), ‘가사와 노동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생활 속 여인의 향기’(커피·그릇·생리대·손뜨개 등), ‘도발적인 코드들의 섹시하고 유혹적인 사물들’(립스틱·스타킹·바비인형 등)을 다뤘다.

또 ‘여성 내부에 존재하는 남성의 취향과 그로 인해 발견되는 동질성’(가죽·호피·타투·장갑), ‘동물적 본능을 승화시킨 문화적 표현으로서의 여성적 대상(인스타그램·백화점·멜로 드라마·독서)도 만날 수 있다.

각 사물에 실린 김중만 작가의 사진과 세잔, 피카소, 클림트, 트레이시 에민 등의 그림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세종서적·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모스크바에서의 오해=1962~1966년 사이 사르트르와 함께 여러 차례 소련을 방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부아르의 자전적 소설. 미발표작으로 남아 있다가 1992년이 되어서야 공개되었다. 50년을 함께한 사르트르와의 애정은 앙드레와 니콜의 끈끈한 관계로, 모스크바에서 만난 통역사 레나 조니나에 대한 질투와 우정은 마샤와의 관계로 생명력을 얻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건 보부아르, 그녀 자신의 삶이다. 〈부키·8900원〉

▲어떻게든 이별=시인 류근의 두번째 시집. 시집의 해설을 맡은 문학평론가 홍정선은 류근이 등단 이후 18년 동안 시로부터 도망다닌 것처럼 보이는 세월에 대한 비밀이 72편의 시들에 숨어 있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한다. 시인은 첫 시집 출간 후 6년이라는 시간만큼 차곡이 쌓인 상처를 다시 진솔한 언어로 매만지며 돌아보고, 아물지 않는 그 상처와 ‘어떻게든 이별’하려는 결심을 거듭하여 시도하고 있다.

〈문학과지성사·8000원〉

▲세상의 위대한 이들은 어떻게 배를 타고 유람하는가=프랑스 작가 멜라니 사들레르가 스물일곱 살에 펴낸 첫 소설. 작가는 터키 여행에서 톱카피 궁을 방문하려고 기다리다가 문득 아즈텍 제국의 멸망 시기와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가 겹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3주 만에 이 작품을 완성해냈다. 기상천외한 상상,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 반짝이는 유머 감각이 돋보이는 소설은 2015년 1월 출간되자마자 프랑스 문단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무소의뿔·1만3000원〉

▲현대인의 건강주스&스무디 100선=경남도립남해대 권오천 교수, 단국대 석좌교수인 이명천 교수, 호원대 김나형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한 웰빙음료의 모든 것을 담은 책. 주스와 스무디가 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어떤 운동에 어떤 주스와 스무디를 얼마나 마시면 좋은지를 제시한다. 한 가지 재료로 만드는 컬러 주스, 두 가지 재료로 만드는 웰빙 주스, 세 가지 재료로 만드는 힐링 주스,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재료로 만드는 부드럽고 달콤한 스무디로 나누어 설명한다.

〈백산출판사·2만원〉

▲소리의 정치=한국영화사 연구에서 최근 본격화된 한국의 토키 이행기를 더욱 예리하게 살피고 폭넓게 탐구하는 책. 영화 테크놀로지의 도입과 변화는 기술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변화를 가리킨다. 식민지 시기 영화에 관한 풍부한 해설과 도판을 통해 당대의 극장이 얼마나 역동적인 공간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사운드 테크놀로지의 문화 정치를 역사적으로 이해하는데도 좋다. 〈현실문화·2만2000원〉

어린이 책

▲추석에도 세배할래요=소설가 김홍신의 재미있는 이야기에 아동문학가 임영주의 풍부한 언어적 감성이 더해져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배움을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전통문화 그림책. 엄마, 아빠, 아이가 함께 읽고 즐기는 동안 자연스럽게 우리 고유문화와 옛 조상들의 슬기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노란우산·9800원〉

▲조랑말과 나=좀비 같은 조랑말과 함께하는 파란만장 여행기. 한 아이가 조랑말을 키운다. 걸음마를 시작하고 세상에 조금씩 눈떠 가면서 키워 온, 함께 자라 온 조랑말이다. 이제는 자신의 일부가 되어 떼려야 뗄 수 없는 조랑말. 아이는 그 조랑말과 함께 여행을 떠나려 한다.

〈이야기꽃·1만2000원〉

▲드림 하우스=사람 사는 냄새 풀풀 나는 이야기로 우리를 울리고 웃기던 작가 유은실이 이번에는 곰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로 찾아왔다. 엄마 아빠가 아닌 할머니, 증조할머니와 살고 있는 보람이와 보루 남매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할머니와 사춘기에 접어든 보람이는 먹고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문학과지성사·9500원〉

▲달이 좋아요=아기 부엉이가 떠난 신비로운 달 여행을 섬세한 연필화로 그린 나명남 작가의 첫 창작 그림책. 달의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포착하여 따스한 상상력과 서정적인 필치로 아름답게 표현해 냈다. 아기 부엉이가 밤을 환히 밝히는 달의 비밀을 알아가는 여정이 정서적 만족감을 전해 준다. 〈창비·1만2000원〉

SAMSUNG ▶120만평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덕지구70만평)
평택 토지 전문
LG전자 ▶11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 평택 투자 절되 후회 없습니다.

평택 토지 매매

① 평택 고덕면 당현리 (고덕신도시 5분) / 토지 613평
▶ 매가 5억 8천 235만

② 평택시 고덕면 동천리 (고덕신도시 5분) / 2,223평(평당 35만)
▶ 매가 7억 8천 178만

③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고덕신도시 5분) / 775평(농림지역)
도로 물림 , 계획관리지역 옆
▶ 매가 8억 5,250만

④ 진위면 마산리 / 314평 (투자 A급)
진위역과 LG산단, 마산단지 지변
▶ 매가 3억 7천 680만

⑤ 진위면 마산리 / 301평(전)
마산산단 25만평 정문 앞쪽
▶ 매가 5억 2천

⑥ 평택시 지산동 (송탄 터미널 3분)
빌라, 오피스텔 개발부지 추천 / 193평
▶ 매가 12억 6천만

전원주택지
◈ 경기도 평택시
송탄 소방사거리 1분 !!
토지 – 1,611평
토목 공사완료 (허가완료)
최고의 입지 조건
※ (총 7 필지 분할가능)
1필지 200평 3억
→ 1억 투자시 가능 (융 2억)
※ 개발시 순수익 5억
▶ 매가 16억

공장부지
◈ 경기도 화성시
정남 IC 5분 !!
평 수 – 1,770평
현재 허가중
(현재 공장부치 최고의 도시)
※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 10억 (평당 56만)

010-7384-7800 010-6670-9800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영광읍 신월리 → 광주에서 40분 !!
◐ 토 151평 , 건 43평
◐ 영광 터미널 5분 (농가주택 최적합!!)
▶ 매가 8천 500만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올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1,000만, 월세 60만(융 5천)
▣ 매가 1억 4천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 2층 (11평) 운천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융 1천)
▣ 매가 3천 5백만(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융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보증금 500만, 월 42만 (융 2천4백만)
▣ 매가 7천 500만

▣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 (15평) 12층 –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

▣ 서울 용산 청파 도시형
→ 지하 (13평) 숙명여대 1분!
→ 보증금 600만 월 60만
▣ 매가 1억 6천 (융 5천)

법률 경매
㈜ 대신경매

★ 경매 물건 추천 ★

①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토 66평, 건 260평
6층 상가건물, 상무지구 중심가
▶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9억5천

② 광산구 신창동 (다가구 원룸)
토 70평, 건 108평
신창중 정문, 신축건물
룸 11개 – 월수익 350만
▶ 감정가 4억6천 → 최저가 3억7천

③ 전남 장성 북하면 (식당건물)
토 280평, 건 253평
백암산 관광지 입구, 식당밀집지역
▶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5억5천

경매교육

▣ 기본이론들으면서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오픈
▣ 입찰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치권, 가장임차인,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직원 구함

부동산 경매 관심있으신분
공인중개사 환영
실전 경험자 우대, 환영

062-527-7600 010-6834-4800